

침몰위치·선체 확인...선원 못 찾아

■골든로즈호 침몰 4일째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 나흘째인 15일 중국 해상당국은 침몰 위치와 선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일부 구명장비 등을 추가로 발견했으나 한국인 7명을 포함한 선원 16명은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중국 당국의 해역 진입 허가를 얻어 경비함 2척과 헬기 1대를 사고 해역에 투입, 수색작업에 나섰다.

한국 선원 가족 24명도 이날 엔타이국제공항에 도착, 엔타이 해상국 관계자들을 만나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색 구조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16일에는 다렌으로 건너가 사고해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실종선원 수색 진전 없어=산둥(山東)성 해상국은 지금까지의 대대적인 수색·구조작업을 통해 사고해역 및 인근 해역에서 골든로즈호의 선체 일부와 구명보트 2정, 구명튜브 4개, 기름띠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부와 해상수색·구조 중심은 사고 발생 후 잇달아 수색, 구조 장비와 인원을 증파하고 그 범위를 확대, 해상 순찰정 1척, 구조선 3척을 포함한 대형선박 및 어선 50여척, 구조 헬리콥터 3대, 고정익 항공기 1대가 사고해역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중국 해상당국은 텐진시 해상국 소속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해양측량팀이 이날 골든로즈호의 대략적인 침몰 위치와 선체의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수색·구조작업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해상당국은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15~16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경비함 급파=해경은 중



중국 헬리콥터 한 대가 14일 산둥성 엔타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선내 물품·구명보트 등 발견...수색 활기 해경, 경비함·헬기 급파...가족들 중 도착

국 당국이 15일 한국 해경 경비함의 사고 해역 진입을 허가함에 따라 3천t급 경비함, 1천500t급 경비함 각 1척과 헬기 1대를 중국 다렌항 남동방 38마일 사고현장에 투입했다.

1천500t급 경비함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백령도 남서방에서 사고 해역으로 향했으며 최신형 헬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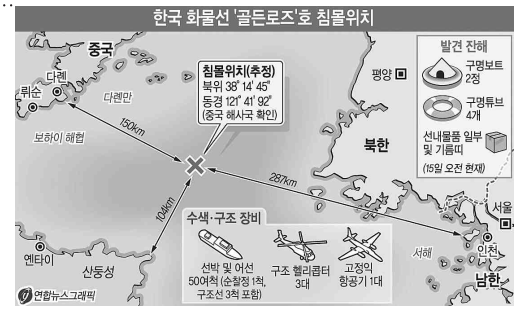
대를 탑재한 3천t급 경비함도 인천 해경부두에서 특수구조요원 10명 태우고 출항했다.

사고 해역은 백령도에서 6~7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어서 이른바 이날 오후 8시께부터 한국 경비함이 수색작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주식기자 who@kwangju.co.kr

실종 한국인 선원 8명 가능성

침몰한 골든로즈호의 실종 선원 가운데 한국인 선원의 수가 8명일 가능성이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발행되는 칭다오조보는 15일 "산둥성 해사국이 제공한 골든로즈호 선원들의 출항 신고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이 8명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광명 신화통신은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신분 확인"이라는 기사를 통해 16명의 선원은 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위치. 실종 선원(추정) 북위 38° 46' 40" 동경 127° 44' 00" (중국 해상당국 확인). 수색·구조 장비: 1천500t급 경비함 1척, 구명헬기 1대, 구명보트 2정, 구명튜브 4개, 기름띠 등. /메이징=연합뉴스

대북 쌀 차관 의결은 했지만...

北 2·13 합의 이행 지체에 정부 고민도 깊어가

정부가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식량 차관 40만t 제공을 위한 자금 집행을 의결했지만 북한의 '2·13합의' 지체 상황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정 통일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쌀 차관 40만t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천649억원의 집행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18~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쌀 40만t을 북측에 제공하는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채택하고 첫 배를 5월 하순에 보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측은 경협위 당시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2·13합의 이행이 쌀 차관 제공의 전제조건이 됐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민은 이렇듯 쌀 차관을 2·13합의 이행에 연동시킨 상황에서 첫 배가 떠나는 시점이 이 달 하순으로 임박했기에 발생한다.

여기서 먼저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날 자금집행을 의결하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2·13합의가 이행된 다음

에 의결해도 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쌀 복송 준비에 필요한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방콕-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의 송금 문제에 걸려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이 달 하순까지 이행될 경우 합의한 첫 복송시기를 지켜야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 측 입장이다.

이 경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조치를 포함한 2·13합의가 5월 하순까지 이뤄질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쌀 차관 복송도 이뤄지게 된다.

최초 선적분은 5천t 가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모티콘' 동·서양이 왜 다를까

한국과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웃는 얼굴을 표시하는 이모티콘이 '^^'이지만 미국인들은 ':)'을 사용한다. 슬픈 얼굴은 각각 ':-(':과 ':(로 나타낸다.

전자는 눈을, 후자는 입을 강조하는 것인데 실제 모습도 이와 비슷하며 이는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한 행동과학자가 주장했다.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보도한 유키 마사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인은 상대의 눈을, 미국인은 입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이런 행동에는 일본보다는 눈을 통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감정을 감추려 할 때라도 눈을 보면 실제 감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유키 박사팀은 실제 인물의 사진 조작을 통해 눈과 입이 나타내는 감정의 정도를 통제했는데 이 경우 역시 일본인들은 눈을, 미국인들은 입을 중시했지만 흥미롭게도 두 그룹 모두 기쁜 눈을 보고 보람이나 슬픈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美·日 정상 "北, 2·13 합의 이행 지연 유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13합의 이행 지연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토니 스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로 "북한 상황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그들의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유감 표명은 2·13합의에 따른 60일 내 이행 시한이 만료된지 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일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깜짝 지휘자 변신

부시 대통령이 13일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서 제임스타운 건설 400주년 기념식 중 연설을 마치고 장난스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데이비드 밀 정상회담에 이어 후속 조치로 이날 아베 총리와 약20분간

통화를 갖고 양국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석방하라"

클린턴 등 전직 정상 59명 연금 해제 촉구 서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61 사진) 여사의 가택연금 만료일을 앞두고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연금조치를 연장하지 말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세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드높다.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존 메이

저,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 등 59명의 전직 국가 정상들은 14일 미얀마 군정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촉구했다.

전직 정상들은 서한에서 "수치 여사는 미얀마에서 혁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부와 평화적, 비폭력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가택연금 조치가 만료되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빈클리=연합뉴스

미얀마 국내에서도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88세대 학생' 단체와 수치 여사가 이끌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치 여사는 오는 27일로 가택연금 생활 햇수가 11년 7개월, 일수는 4천230일째가 된다. 미얀마 군정은 이날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상은 불공평' 느끼면 심장병 발병 확률 ↑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회 전반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일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영국 의학전문지에 따르면 직장 상사나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 자신이 불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 비해 심각한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런던대학 로버트 드 보길 교수팀이 약 11년에 걸쳐 공무원 8천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이다. /덴턴블록=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2007년 9급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광주/전남시험합격 = 함께가요 한빛

7·9급 공무원

- ★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 ★ 서울시문제풀이 (1개월 완성)
- ★ 농업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첫진도 개강 6월 1일

마감임박! 예약필수!

역동들의 결성체 = 7/9급 다이아몬드팀 A.B.C반

1등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234-0234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 홈페이지 한글주소 *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아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목포지사 (061)284-1115 ●순천지사 (061)723-6003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